■민족문화연구 제95호(2022.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01-336.
http://doi.org/10.17948/kcs.2022..95.301

1950년대 미국 국제정보교육교환법(PL 402)에 의한 한·미 교육교환*

—학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장영민(張泳敏)**

목 차

1. 머리말
2. 교육교환 프로그램의 기본 정책
3. 학자 프로그램의 개시와 파행
4. 정전 후 학자 프로그램의 시행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50년대에 미국의 국제정보교육교환법(PL 402)에 의하여 한국과 미국 간에 시행된 교육교환 프로그램의 정책과 시행 과정을 고찰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한·미 간 상호이해를 표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정부의 대외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미국정부의 재정적 외교적 지원으로 10년 동안 약 500명에 가까운 한국인과 미국인이 태평양을 건넜다. 교육교환 프로그램은 크게 학자 프로그램과 비학문 사업으로 나뉘었다. 한국의 학문과 지식을 미국식으로 변경하는데, 큰 역할을 한 전자에 연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7666).

**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명예교수.

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1950년 3월에 교육교환 첫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전쟁으로 파행을 맞이하였다. 정전 이후 프로그램의 운영은 회복되었으나, 예산 변동이 심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학자 프로그램의 기본적이며 장기적 목적은 학생과 학자를 미국 대학에 파견하여 지식과 학문을 배워서 한국에 이식하도록 한다는 것이었고, 전후에는 고등교육의 전후복구가 단기적 목적이 되었다. 젊은 대학교원을 대학원에 학생으로 파견하여 교육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었고, 파견 인원이 가장 많았다. 대개 중견 교수였던 연구학자와 강사가 뒤를 이었으나, 소수에 불과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는 학자 프로그램 파견자 선발 정책이 변하였다. 그 결과 중견 교수보다는 영어 실력을 갖춘 젊은 교수가 한층 선호되었고, 지방 소재 대학에서도 파견자를 선발하였다. 비학문 프로그램인 지도자와 전문가 프로그램은 미국정부 대한정책의 현실적 수단으로서 가장 중시되었다. 특히 1950년대 중반에는 국회의원, 법학자와 법조인, 언론인을 집중적으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교육교환 프로그램은 미국정부의 정책대로 장기적으로 학계를 비롯한 각 분야의 엘리트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인의 삶과 사회의 구조를 미국식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주제어: 국제정보교육교환법, 스미스-먼트 프로그램, 교육교환, 유학생, 도미유학.

1. 머리말

해방 직후 미군의 남한 점령 이래 본격화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대단히 긴밀하다. 양국 관계가 이렇게 진전된 경위와 의미를 요약하면, '한국의 미국화'라고 하여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 요인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미국식 지식과 기술의 수입이다. 교육기관을 비롯한 각종 제도와 매체 등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하였고, 미국인이 교사로서 직접 가르쳐주거나, 한국인이 학생으로서 현지에서 배워온 것으로, 한국인의 세계관과 문화에 충격을 가하였고, 현대 한국의 제반 구조를 재구성하였다. 경제개발도 그에 힘입은 바가 컸고, 민주적 사고와 제도의 정착에도 기여한 바를 부정하기 어렵다. 국무부가 관장한 교육교환(Educational Exchange)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규모는 작더라도 교육계를 비롯한 언론과 사법 기관 같은 제도와 선택받은 엘리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으므로 대단히 중요하며 효과적이라고 미국정부기관은 평가하였다.[1)]

이 연구는 흔히 스미스-먼트 법(Smith-Mundt Act)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정보교육교환법(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Act of 1948, PL 402)에 주목한다. 이 법에 의거하여 국무부는 세계 각국에서 교육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기본 틀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2] 한·미 교육교환 프로그램은 1949년에 시작하였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특수한 관계가 급속히 진전하던 1950년대에는 혜택이 많고 권위를 인정받았던, 극소수 엘리트를 위한 배움과 견문의 기회였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교환방문자(Exchange-Visitor)는 미국정부로부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물론이며, 여비, 학비, 도서비, 생활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grant. scholar grant. 장학금)으로 지원받았다. 1950~60년 사이에 대학원생 144명, 연구학자 38명, 강사 10명, 교사 18명, 지도자 133명, 전문가 124명 도합 467명이 도미하였고, 미국인 학자 32명이 강의와 자문 목적으로 방한하였다.[3] 본래는 일본 등 외국 방문자지만, 국가 간 교환(Inter Country Exchange)으로 잠깐 방한하여 활동한 미국인이 47명이다. 한국인은 같은 기간에 도미한 사비 유학생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지만,[4] 학자 프로그램 교환방문자의 직업, 수학 미국 대학, 귀국 후 지위

1) Response by the Counselor for Public affairs(Director of USIS Korea), Questions about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September 17, 1962, Report on NAFSA Responses, October 25, 1962(RG 59,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Study Materials, 1962-1963, Box 1).

2) 1960회계연도 교육교환 프로그램 예산은 약 3천만 달러였고, 이때까지 105개 국가와 8,225명(외국인 미국 입국자 5,968명, 미국인 해외 파견자 2,257명)을 교환하였다(The President's Committee on Information Activities Abroad, The Exchange of Persons Program of the U.S. Government, August 8, 1960, pp.16-18, RG 59, Records Relating to the President's Committee on Information Activities Abroad, Box 107). 같은 해 한국 관련 예산은 22만 1천 달러, 양국 파견 인원은 한국인 43명, 미국인 3명이었다(RG 306, Information Center Service/Cultural Operation Division, Far Eastern Libraries and Centers Branch Country Files, 1947-1965, Box 35).

3) KOREA(Manuscript Collection 468: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Historical Collection (CU), University of Arkansas, Mullins Library, Box 318). 이하 아칸소 대학 도서관 자료는 (CU)로 줄임.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프로그램 시행 이후 모두 482명을 교환하였다(〈표 1〉 참고).

4) 장영민, 「1950년대 도미유학과 유학생의 미귀국」, 『한국근현대사연구』 96, 한국근현대사학회,

와 영향력 면에서 일반 유학생이나 기술연수생과는 현저하게 달랐다.[5] 이처럼 한국사회의 엘리트나 그 후보군에 관련된 사업이었으므로, 미국대사관의 문정관(Cultural Affairs Officer - CAO)이나 공보관(Public Affairs Officer - PAO)을 겸임한 미국공보원장이 실무 책임을 맡았고, 때에 따라서는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할 만큼 중요한 업무였다.

교육교환에 관한 초기 연구는 구체적 사실을 얻지 못하였고,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을 넘어서 나왔다.[6] 허은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히고 중요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특히 1950년대 교육교환 프로그램을 비롯한 한·미 간 인적 교류의 목적을 "친미적인 '한국의 미래 지도자'", "헤게모니 구축의 '전위'"의 양성이라고 규정하였다.[7] 그렇지만 고위 관료와 정치인 같은 지도자, 언론인 등 전문가, 훈련군인에 중점을 두었고, 학생과 교수에 관련해서는 간략히 언급하였다. 국제정보교육교환법에 의한 교육교환은 1960년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대표적인 학자 교환 프로그램이었으므

2021, 303-339면.

5) 미국유학을 통한 친미 엘리트의 형성에 관한 일반적 소개는 임대식의 글(「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사, 152-167면)을 참고. 1960년대 초반 윌리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은 "3류 대학"의 입학허가서를 쉽게 얻어 입국하는 외국 유학생이 점점 많아진다고 지적하였다(Letter, from J.W. Fulbright to Dean Rusk, Secretary of State, 10/18/61, RG 59, Central Decimal Files, 1960-1963, Box 1049). 이는 한국인의 사비 유학에서도 이전부터 나타나던 경향이었다. 반면 대다수 교육교환프로그램 파견자는 명문대에 배치되었고, 수학 대학은 취업과 지위 획득에 중요한 요소였다. 이하 Central Decimal Files는 CDF로 줄임. 해방 후 첫 관비 유학생인 이한빈은 1975년까지는 새로운 세대의 지적인 지도자들이 영향력 있는 지위를 차지하리라고 1960년대 중반에 예고하였다(Official Informal Letter, from Donald S. Macdonald to Christopher A. Norred, Jr., Department of State EA/K, May 10, 1965, RG 59, Bureau of Far Easter Affairs, Office of the Country Director for Korea, Box 3). 1976년 6월 현재 교환방문 출신자로 행정부에서 근무하던 장관, 대사, 청와대 보좌관 등은 18명, 국회의원은 25명, 대학 총장 6명, 언론사 사장 5명이었다(Attachment: List of Ex-Grantees in Positions of Significance, Airgram, from AmEmbassy Seoul to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Evaluation of Department Program, June 7, 1976, A-84, (CU), Box 26).

6) 정범모는 미국공보원의 자료를 근거로 1950~1966년까지 PL 402, 풀브라이트 프로그램(PL 584), 동서센터 프로그램에 의한 한국인 파견자가 940명, 미국인이 147명이라고 하였으나, 자세한 설명이나 분석은 하지 않았다(「교육교환에 의한 미국문화의 영향」, 『아세아연구』 26,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6면).

7)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8, 204-244면.

로,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 신문기자의 도미연수와 미국인 언론학자의 방한 활동에 초점을 맞춘 차재영의 논문은[8] 중요한 사례 연구이다. 미국에서는 교육교환 프로그램이 한국의 국가건설과 근대화에 이바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저서가 출간되었다.[9] 중시해야 할 업적이지만, 미국정부의 정책과 그 효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임월산은 미국정부의 문화정책을 다루면서 교육교환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10] 미국정부는 한국 엘리트와 "지적이며 문화적 위계관계"를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였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최근에 나온 이런 논저는, 관점은 약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미국정부의 목적과 정책을 분석하여 냉전 정책으로서 교육교환 프로그램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치중하였고, 일부 사례를 들어 귀국자의 지위와 역할,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제도로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행 등에 관한 기본 사실을 정리하는 작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PL 402 교육교환 프로그램에는 하위 프로그램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시기별로 시행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누구를 대상자로 선발하고 몇 명을 파견하였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 외에 교환방문자의 명단, 귀국 후 활동, 미국 측의 귀국자 관리 등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1950년대 교육교환 프로그램의 내용, 시행 과정과 변화에 관련된 사실을 찾고 정리하는 데 역점을 둔다. 특히 미국식 지식과 학문의 주요 수용 경로인 학자 프로그램(Scholar Program)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하지만 연구 방법이 제도로서 프로그램의 전반을 살피기 위해서 사

8) 차재영, 「1950년대 미국무성의 한국 언론인 교육교류 사업 연구」, 『한국언론학보』 58-2, 한국언론학회, 2014, 219-245면.; 「1950년대 미국무성의 미국 언론 전문가 파견 사업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87, 한국언론정보학회, 2018, 243-275면.

9) Gregg Brazinsky,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pp.41-70, pp.161-188.

10) Wol-San Liem, "Telling the 'truth' to Koreans: U.S. Cultural Policy in South Korea during the early Cold War, 1947-1967",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Ph.D., Department of History, New York University, September, 2010, pp.207-273, pp.385-456.

실을 찾거나 설명하는 것이므로, 사실의 깊은 분석이나 해석, 교환방문자의 활동과 그 영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녔다. 그래도 이런 기본 사실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의의를 논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원조기관의 기술연수와 고등교육지원 사업,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등 교육과 관련된 인적 교환사업의 상호 연관성이 중요하다. 교수가 대다수인 미국인 학자와 전문가의 방한 활동은 또 다른 큰 과제이므로 향후 본격적인 논고를 기대한다. 사용한 1차 자료는 대부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t College Park, MD)과 아칸소 대학 도서관 소장 문서이며, 하티트러스트 디지털 도서관(HathiTrust Digital Library)의 디지털 자료도 포함한다.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도 일부 문서를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2. 교육교환 프로그램의 기본 정책

교육교환 프로그램의 근거 법률인 국제정보교육교환법이 표방하는 목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더욱 잘 이해하고, 미국 국민과 그들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미국과 미국인, 그리고 미국정부 대외정책에 관한 '정보의 해외전파', 곧 대외선전이 첫 번째로 제시되었고, 그 핵심은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 각종 선전 활동을 재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교육교환'으로, 다른 나라와 1) 사람, 지식, 기능, 2) 기술적 서비스, 3)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성취를 교환함으로써 서로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즉 정보의 해외전파와 교육교환을 골간으로 하는 이 법은 냉전기의 대표적인 대외선전지원법이자, 미국의 헤게모니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대외정책 도구였다.[11]

11) 22 USC Ch. 18: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Title 22 - Foreign Relations and Intercourse(https://uscode.house.gov/browse.xhtml); 장영민, 「정부 수립 이후(1948-1950) 미국의 선전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3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277-278면. 국무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Policy Guidance for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of the U. S.'를 작성하였다. 이 지침의 III. 결론과 권고, B에서 "이 프로그램은 미국정부의 선전 도구이다."라고 규정하였다(R

정부수립 직후부터 국무부는 미국과 소련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치하는 지점이며, 공산주의 위협을 받는 신생국가 한국의 생존이라는 제일차적 대한 목적, 그리고 건전한 경제와 안정된 정부의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인에게 미국정부의 정책과 발표를 널리 알리고, 미국식 생활양식의 기본 사상과 철학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육교환을 비롯한 인적 교류는 이런 정책 목표의 달성 수단으로 추진되었다.[12] 또한 한·미 교육교환 프로그램 준비 당시부터 주목한, 소련 등 공산국과 북한의 유학생 상호교류에 대한 맞대응이기도 하였다.[13]

주한 미국공보원이 1958년 7월 제출한 1960회계연도 계획서에는[14] 1950년대 중후반 교육교환 정책과 목적이 다른 자료보다 간명하게 정리되어 있다. 대한선전목표는 민주적 생활 개념의 이해, 발전에 관한 적극적 태도 형성, 대한원조 목표 달성, 반공의식 고취, 미국인과 미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확대, 미국 대외정책의 목적에 대한 이해, 대한정책의 건전성 과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교육교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을 지녔다. 1) 미국의 학문과 과학의 업적을 이해하도록 하고, 2) 귀국 후 활용하도록 전공 분야의 지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지원하고, 3) 한국에서는 상징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로 중핵집단을 형성하여 대사관 및 공보원 직원과

G 59, Miscellaneous Records of the Bureau of Public Affairs, 1944-64, Boxes 3, 4).

12) Statement of Principal Witness for the Office of Assistant Secretary for Public affairs,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Activities, Korea, Fiscal Year 1950(RG 59, CDF, 1945-1949, Box 4818); Excerpts from the Report by the Hous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perations(Brown Committee) Pertaining to Exchange of Persons Programs in the Far East(RG 59, Assistance Branch, Box 7). Correspondence, Memorandums, and Reports of the Chinese and Korean Assistance Branch, 1948-1955는 Assistance Branch로 줄임.

13) Attachment: Soviet Cultural influence in North Korea, Fifth Semiannual Report of The U.S. Advisory Commission on Educational Exchange, for the Period July 1 1950, through December 31, 1950, pp.13-15.

14)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46, July 28, 1958,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Fiscal Year 1960 Country Program Proposal(RG 59, CDF, 1955-1959, Box 2246).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요약하면, 방문교환자가 미국의 지식을 열심히 습득하여 귀국 후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PL 402에 의한 교육교환사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대표적인 것은 다음 세 가지였다. 주로 미국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학자 프로그램(Academic Program), 정부 관리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상층을 대상으로 삼는 지도자 프로그램(Leader Program), 각계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중견간부가 참여하는 전문가 프로그램(Specialist Program)이 그것이다. 뒤의 두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비학문 사업(Non-Academic Program)이었다. 이밖에 중고등학교 교사 훈련, 경찰이나 노동조합 간부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었다. 언론인 합동 교육처럼 각국에서 선발한 특정한 직업군을 함께 교육하는 교환 프로그램도 있었다.

학자 프로그램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미국문화를 전파하고, 단기적으로는 반공 지식인층을 육성하고, 저개발 국가의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었다.[15] 젊은 귀국자들은 일본인에게 교육받은 선배를 대신하여 대학과 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세대교체를 이룰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생(Student Study, Graduate Student), 학문 연구에 집중하는 연구학자(Research Scholar), 그리고 현직 교수를 대상으로 한 교수(Professor)와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Lecturer) 프로그램이 각각 내부 범주로 분리되었다.[16] 대학원생은 보통 35세 이하로 대학 학부 수료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였다.[17] 전쟁이 끝난 뒤

15) Memorandum from Thomas C. Sorensen of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to the Special Counsel to the President-Elect(Sorensen), December 196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17-1972, Volume VI, Public Diplomacy, 1961-1963,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2017, p.1.

16) Appendix No. VI. Department of the Board of Foreign Scholarships Governing the Student Program, November, 1953(Assistance Branch, Box 24).

17) Criteria for Selection of Participants in the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of the Department of State under Public Law 402, 80th Congress, and Public Law 584, 79th Congress(Fulbright Act)(RG 59, Correspondence, Memorandums, and other Reports of the Foreign Grantees Branch of the Professional Activities Division, 1954-1955, Box

에는 강사, 조교수, 부교수 등 대학교원이 선발 과정에서 우대받으며 '청년 교수'라는 이름으로 미국 대학원에 대거 진학하였다. 일반적으로 1~2년에 걸쳐서 유학하는 기회를 얻었고, 계속 연구나 학위취득을 위한 비자 연장도 가능하였다.[18] 교수 프로그램은 시행 초기에는 영어 강의 가능 여부가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렇지 못한 교수는 연구학자 프로그램으로 도미하였다. 연구학자는 33~55세의 박사학위나 그와 동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며, 학문적 업적과 연구 목표가 있고, 연구비가 필요하였다. 강사도 연구학자와 비슷한 자격을 구비하고, 영어에 능숙하고, 강의할 교과목을 준비하여 미국 대학에서 수업할 수 있어야 하였다. 이와 같은 자격 조건은 각국의 모든 교환방문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었고, 한국 학자도 마찬가지였다. 1950년대 파견자에는 대학원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연구학자이며, 강사와 교수 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된 파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교사 훈련 프로그램도 학자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중고등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미국의 교육과 생활양식 등을 대중적으로 확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도자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유력인사들이었고, 1950년대 중반에는 판검사, 국회의원, 대학 총장, 중고등학교 교장, 문화계 인물로 확대되었다. 미국에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선전 효과가 크고, 정부 정책에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주한 미국대사가 우선 선발하였다. 그들과의 인맥은 정보를 입수하거나 양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처럼 지도자 프로그램은 외교와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다른 프로그램보다 훨씬 중시되어 파견자는 우대받았고, 인원수도 많았다. 현실적 용도를 지녔으므로, 지도자 프로그램은 대개 3개월에서 6개월에 지나지 않던 단기 시찰 프로그램이었다. 때로 프로그램은 특정한 대한정책목표 아래 운영되었다. 1954년 제2차 개헌 직후부터는 '법의 지배'를 내세우며 한국 법체계를 대륙

2). 이하 Professional Activities Division으로 줄임.

18) 1958년까지는 1954년 파견자인 김운수가 4년 동안 머물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예가 최장 체류 기록이었다(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March 10, 1958(RG 59, CDF, 1955-1959, Box 2247).

법에서 영미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미 양국 법조인을 교환한 것이 그 예이다. 1958년까지 법학자를 비롯한 변호사, 판사, 검사 약 100명이 미국에서 훈련받았고,[19] 그중 상당수가 교육교환 프로그램 파견자였다.

전문가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정부기관과 산업계의 중하위 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이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 반공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사회제도와 경제적 토대가 중요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학문 연구가 아니었으므로 몇 개월에서 길어야 1년 동안 대학이나 기술학교에서 실시하는 단기코스를 이수하거나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았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기술인력이 주로 원조기관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도미하게 되었으므로, 미국대사관은 대한정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파견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 언론인의 실무 능력과 책임감을 높일 필요가 컸고, 이들의 언론 활동이 선전 효과를 높일 수 있었으므로, 다수의 신문기자를 전문가 프로그램으로 파견하였다. 이런 변화로 지도자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차이는 없어져 갔다.[20]

1950년대 한·미 인적 교환사업에는 PL 402 외에 국제협조처(ICA)가 주관한 기술연수 파견사업 등이 있었다.[21] 기존 연구에서는 한진금만 PL 402와 ICA 프로그램의 상호관련성, 미국공보원과 OEC 기술훈련국의 협력을 언급하였지만,[22] 실상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두 프로그램은 입

19) 21st Semiannual Report to Congress,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January 1 – June 30, 1958, p.27(RG 59,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Records Relating to Leaders and Specialists Project, 1951-1963, Box 2).

20) 국무부 국제교육문화국 소속으로 분리되어 있던 지도자과와 전문가과가 1956년 지도자와 전문가과로 통합되었다(Annual Report, July 1, 1956 – June 30, 1957, Leaders and Specialists Division, 같은 자료).

21) 서울대 지원사업인 ICA-미네소타대학 프로젝트에는 교수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1955년부터 1961년까지 225명의 교원이 도미유학을 하였다(김명진, 「1950년대 고등교육 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94면). ICA-피바디 대학 프로그램으로 교사, 교육행정가, 교수 82명이 파견되었다(김지연, 「전후 미국의 한국 교육원조, 1956-62」,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85-89면, 116-119면). 그 외에 시라큐스대학 등 여러 대학도 ICA와 계약을 맺고 소수이나마 교환사업을 하였다(한봉석, 「미국 대한원조에서 미국대학들(American Universities)의 역할과 그 의미: 시라큐스 대학과 오레곤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림』 70, 수선사학회, 2019, 191-220면).

법 취지나 목적과 방법 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23] 그러므로 실무기관인 주한 미국공보원과 원조기관은 각기 권한과 책임 아래 담당 사업을 거의 독자적으로 시행하였다. 두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있었어도 파견 분야와 파견자의 중복을 방지하는 데 그쳤다. PL 402의 파견 대상은 인문사회 분야였고, 서울대 교수를 포함한 ICA 파견자는 대부분 과학, 공학, 농학, 의학, 기술, 관리 분야 종사자였다는 것은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교육교환의 목적은 상호이해였고, 기술연수는 경제력 개발과 생활 수준의 개선이었던 결과였다. 국무부는 PL 402만으로는 어려운 대규모 학자 교환이 PL 584의 병행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풀브라이트 협정의 이행을 한국정부에 재촉하였다.[24] 양자는 국무부와 미국대사관이 관장한 인적 교환사업이었으므로, 대한정책의 큰 틀에서 정책과 시행이 조정될 수 있었고, 특히 학자 프로그램은 더욱 그러하였다. 하지만 PL 402에는 학자 프로그램 외에 지도자와 전문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PL 584는 학자 프로그램뿐이었다는 점에서 달랐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양국 간(Bi-National)에 체결된 쌍무 협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국 측도 자금 분담을 하면서 한 주체로서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두 프로그램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되었다.

3. 학자 프로그램의 개시와 파행

1949년 4월 하순 전에 미국대사관의 인적 교환과는 1950회계연도 교육교환 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 후에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축소되었지만, 애초에는 500명에 달하는 인원을 미국에 파견한다는 방대한 계획과 140만 달러에 육박하는 예산안을 세웠다.[25] 그만큼 양국의 초기 관계에서 교육교환을

22) 한진금, 「1950년대 미국 원조 기관의 對韓기술원조훈련계획 연구」, 『한국사론』 56, 서울대 국사학과, 2010, 474-477면.
23) Department of State Instruction, NO. CA-4437, January 10, 1955(RG 59, CDF, 1955-59, Box 2075).
24) '1960~70년대 한·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교환'이란 제목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101호에 곧 발표할 예정임.
25) Office of Educational Exchange, Korean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Fiscal

중시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10월 10일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한·미 교육교환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PL 343에 서명하였고, 같은 날 국무부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지시하는 전문을 보냈다.[26] 가을부터 시작된 교환방문자의 모집과 선발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27]

1950년 1월 대학원 파견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미국대사관은 지원자 약 150명 중 절반을 먼저 선발하여 최종 선정권을 가진 국무부에 보고하였다. 국무부는 그 가운데 36명을 최초 유학생으로 선택하였다. 대사관은 같은 시기에 한국정부에도 유학생 명단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5월에야 유학생 신원조회 결과를 받았을 만큼, 한국 측에서는 자격 여부와 "사상"을 꼼꼼하게 따졌다. 대사관은 유학생들이 공산주의자와 접촉하거나 한국의 위상을 저해할 가능성을 대통령이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28] 이런 관문을 통과한 학생은 강길수 등 33명이었고, 승인을 얻지 못하여 탈락한 학생도 있었다.[29]

프로그램상으로는 교수도 파견 대상이었으나, 실제로는 한 명도 선정하지 않았다. 미국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해야 한다는 조건에 맞는 교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듯하다. 6~12개월 동안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연구학자는 10명이었다.[30] 인문학 1명(최완복), 철학 2명(한치진, 박희성), 미술 1명(장발), 정치학 1명(유진오), 영어 1명(이양하), 임학 1명(현신규), 의학 2명(이채규, 이학송),

---

Year 1950, Summary(RG 59,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Records Relating to Leaders and Specialists Project, 1951-1963, Box 2).

26)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 Korea, Fiscal Year 1950 and 1951(RG 306, Information Center Service/Cultural Operation Division, Far Eastern Libraries and Centers Branch: Country Files, 1947-1965, Box 4); Incoming Airgram, from American Embassy in Korea, Seoul to Secretary of State, A-307, October 10, 1949(RG 59, CDF, 1945-1949, Box 4818).

27) 『경향신문』, 1949년 10월 18일.

28) Despatch,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December 5, 1949, subject: Statement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Regard to Applicants for Student Passports(RG 59, CDF, 1945-1949, Box 4818).

29)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NO. 637, May 5, 1950(RG 469, Office of the Deputy Director of Administration, Far East Geographic Files, 1948-1952, Box 73).

30) Outgoing Tele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USPOLAD, Tokyo, A-51, August 21, 1950(RG 59, CDF, 1950-1954, Box 2541).

약학 1명(이우주)이었다. 그리고 본래 계획에는 없던 지도자 프로그램이 생기고, 전문가 인원이 늘었는데, 주로 유력 인사들이 도미 기회를 요구하였던 것 같다. 이기붕의 처, 장덕수의 처, 변영태, 최두선, 이호 등이 포함되었다.

PL 402 사업 중 가장 먼저 추진된 중등학교 교사훈련 프로그램에 선발된 17명 중 영어교사 11명이 3월에 처음으로 출국하였다.[31] 이들은 6월 하순 미시간 대학에서 3개월의 영어교육코스를 수료하였다. 미국에서 전쟁을 맞았던 이들 중 귀국 길에 오른 1명은 주한미군에, 7명은 일본 유엔군사령부에 고용되었고, 1명은 대학원 장학생으로 전환하여 미국에 계속 머물렀다. 후에 2명이 미국에 도착하였다.

영어교사를 뒤이어 학생, 강사와 연구학자, 지도자와 전문가가 미국으로 떠나기 시작하였다.[32]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였으므로, 도미를 늦게 하거나 아예 떠나지 못한 선발자들이 다수였다. 대학원 장학생 36명 가운데 정범모, 강길수, 이재성, 서의돈, 윤정협 5명의 학생은 6월 21일 미국에 도착하였고, 후에 6명이 도미에 성공하였다. 이들은 모두 1952년 6월까지 비자가 연장되었고, 지원할 자금도 충분하였다.[33] 연구학자는 1950년 8월까지 한 명도 출국하지 못하였으나, 이듬해 1월 초까지 미국에 입국한 인원은 모두 7명이었다. 지도자와 전문가 중에서도 박마리아 등 몇 명도 도미하였다. 1950년 프로그램으로 방한하기로 하였던 미국인 교수 14명 중 실제 한국에 온 사람은 6명이었다.

1951회계연도 프로그램으로는 약 35만 달러 예산으로 한국인 강사 5명, 연구학자 5명, 교사 10명, 학생 35명, 지도자 20명, 미국인 지도자 8명을 파견하기로 예정하였으나,[34] 1월 이래로 장학금 수혜자를 한 명도 미국으로

31) Outgoing Air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SCAP, AUG 3, 1950(같은 자료); Outgoing Tele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USPOLAD, Tokyo, A-51, August 21, 1950.

32) Letter, from Russell L. Riley, Director, Educational Exchange Service to Mr. Martin J. Buss, Chairman, Sub-Committee on Law, Korean Educat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Committee, Princeton, New Jersey(RG 59, Assistance Branch, Box 26); Office Memorandum, from FE/P Daniel C. Buchanan to NA Mr. Emmons, January 6, 1951, Office Memorandum, from FE/P Daniel C. Buchanan to NA Mr. Arthur B. Emmons, May 16, 1951(RG 59, CDF, 1950-1954, Box 2541).

33) Memorandum, from IEP-Helen Ripley to IEP-Mr. Byers, November 9, 1951(RG 59, Assistance Branch, Box 7).

보내지 않았다.[35] 대신 미국 대학에서 수학하던 영어교사 1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미국 의회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공산주의 선전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1951회계연도 국제정보교육교환 예산을 약 3배로 늘렸으나,[36] 한국에서는 세워둔 계획조차 시행하지 않았다.

1951년 3월 국무부는 1950년도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952년도 연구학자 지망서류를 보내라고 지시하였다.[37] 그러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미국대사관 계획은 막연한 구상에 머물렀다. 결국 미국에 유학 중이던 연구학자 8명에게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결정되었다. 지도자와 전문가 프로그램은 진행되어 대사관은 언론인, 노동 지도자, 사회사업가, 청년 지도자를 후보자로 추천하였고,[38] 그중 홍종인, 설국환, 김삼규, 박종화, 전진한 등 10명은 지도자나 전문가 프로그램으로 도미할 수 있었다.

전선이 고착된 1952년 11월 한국정부가 전후 고등교육의 복구를 지원해 달라며 학생 대신 교수의 파견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므로, 미국대사관은 1953회계연도 대학원생 프로그램에 12개 대학의 강사와 조교수를 추천하였다.[39] 또한 장학생(student grantee)을 "청년 교수(Young Professor)"로

---

34) Office Memorandum, from FE/P-Daniel C. Bucanan to NA-Mr. Arthur B. Emmons, May 16, 1951, subject: The present Status of Exchange of Persons Program with Korea(RG 59, CDF, 1950-1954, Box 2541).

35) Incoming Telegram, from Pusan 192, May 31, 1951 to Department of State(같은 자료).

36) Dean B. Mahin,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Visitor Program, CU History Project-1973, P.4(RG 306, Bureau of Information, Office of Information Resources, Library Programs Division, Special Collections Branch, Box 3).

37) Outgoing Air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mbassy, Pusan, A-179, March 14, 1952(RG 59, CDF, 1950-1954, Box 2541).

38) Letter, NO. 94, from American Embassy, Seoul, December 24, 1950, subject: Panel for 1951 Foreign Leader Program(같은 자료).

39) Incoming Telegram, from Pusan to Department of State, NO. 698, November 28, 1952(같은 자료); Outgoing Air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mbassy, Pusan, A-86, December 19, 1952; Outgoing Air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Amembassy, Pusan, A-61, Nov. 3, 1952; U.S.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rea Far East, Year 1953, United States Educational Exchange Grants for 1953, Prepared by Program Planning, Program Development Staff, July 1, 1953(RG 59, Assistance Branch, Box 7).

변경하여 발표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국무부는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방침을 고수하였다. 대신 "대학교수 프로젝트(University Faculty Project)"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전 후 미국 대학의 교육을 본떠 고등교육을 복구할 대학교수를 중점 파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정책이었다.

1953회계연도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인 전문가 5명, 한국인 강사/연구학자 12명과 지도자 14명, 학생 32명이 파견 인원이었다. 그런데 학생 32명은 한국에서 선발되어 파견된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 있으면서 학생 비자를 방문교환자 비자로 변경하기로 하고, 미국 정부에 재정지원을 받던 박준규 등 주로 학부 유학생이었다. 이해 강사와 연구학자, 지도자와 전문가 프로그램으로 도미한 인원은 각각 12명씩 24명이었다.[40] 이처럼 전쟁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었어도, 1949년 이래 국무부의 지원으로 도미한 학생, 학자, 지도자 등은 176명이 넘었다.[41]

4. 정전 후 학자 프로그램의 시행

1) 프로그램의 복구

아래 표는 1960회계연도까지 파견된 인원이다. 그렇지만 통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문서에 사용된 연도가 회계연도인지 일반 연도인지, 파견자의 숫자가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또한 계획서와 보고서, 문서마다 상이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파견자의 출국 시점, 수학 연장 등 통계에 다르게 잡힐 요소는 다수였다. 2010년 한미교육위원단이 간행한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역사서에 실린 통계마저도 매우

40) Excerpts from the Report by the Hous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perations(Brown Committee) Pertaining to Exchange of Persons Programs in the Far East(RG 59, Assistance Branch, Box 7); Department of State Instruction, A-24, August 19, 1953, subject: Exchange of Persons: Smith-Mundt Research Scholars(RG 59, CDF, 1950-1954, Box 2541).

41) Exchange of Persons Program With Korea((CU), Box 318).

부정확하다. 따라서 〈표 1〉은 프로그램 파견자의 추이와 정책 변화를 대강 살피는 데나 참고할 수 있는 불완전한 통계표이다.

〈표 1〉 1950~1960회계연도 교환방문자

	학생		교사		강사, 연구학자		지도자		전문가		합계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1950	11		13		7		4		2	6	43
1951	1										1
1952					8		10		6		24
1953					12		13				25
1954	14				3	1	6		7	4	35
1955	22		2		9	1	23		38		95
1956	14				2		11		14		41
1957	21		3		3	2	26		14	3	72
1958	19						12		20		41
1959	31						28				59
1960	20				2	1	11		10	2	46
합계	153	0	18	0	46	5	157	0	91	15	482

1950년도 - '3절 학자 프로그램의 개시와 파행' 참고.
1951년도(IIA Ninth Semi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Congress on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1952, p.23).
1952년도(IIA 10th Semi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Congress on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1953, p.51).
1953년도(IIA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12th Semiannual Report, July-December 1953, p.24).
1954년도(Partners i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1955, p.42).
1955년도(15th Semiannual Report, January 1- June 30, 1955, p.54).
1956년도(Mutual Understanding in the Nuclear Age: 17th Semiannual Report to Congress, Department of State, 1957, p.39).
1957년도(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January 1- June 30, 1958: 20th Semiannual Report to Congress, Department of State, 1959, p.44).
1958회계연도 - 대학원생 19명,[42] 지도자 12명,[43] 전문가 20명.[44]

---

42)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65, August 8, 1958,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Annual Report, Fiscal Year 1958(RG 59, CDF, 1955-1959, Box 2247).
43) Department of State Instruction, A-93, December 15, 1958(RG 59, CDF, 1955-1959, Box 2246).
44) Department of State Instruction, A-16, July 29, 1958(위와 같음).

1959회계연도 – 대학원생 31명,[45] 지도자의 출처 기록은 다시 확인하지 못함.[46]
1960회계연도[47]

정전을 전망할 수 있게 되자, 미국대사관이나 한국정부 측에서는 장기 목표가 아닌 전후 복구를 위해서라도 지식과 기술을 배워올 유학생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특히 문교부와 교육계에서는 학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국무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국무부가 원하는 것은 풀브라이트 협정의 이행이었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2천만 달러가 넘는 이른바 '해외청산위원회차관'을 상환하면, 그중 일부를 양국 협정에 따라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시설의 건설에 전용하겠다는 의지를 전쟁 전부터 고수하였다.[48] 따라서 양측의 이견은 오랫동안 해소될 수가 없었다.

1954년 6월 국무부가 한국에 할당한 방문자는 35명으로, 한국인 지도자 6명, 전문가 7명, 강사/연구학자 3명, 대학원생 14명, 그리고 미국인 전문가 4명, 강사 1명에게 약 15만 8천 달러가 배정되었다.[49] 학자 프로그램이 17명으로 파견 인원의 절반을 차지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구학자는 고형곤 서울대 교수, 이종우 고려대 부총장, 정석해 연희대 문과대 학장인데, 이들은 철학을 전공함에도 연구 분야를 고등교육이라고 하였다.[50] 전쟁 후 고

45) Shin. Jai Ok, James F. Larson, Frederick F. Carriere & Horace H. Underwood. 2010, Fulbright in Korea's Future: A 60th Anniversary Commemorative History. Seoul Selection, Appendix Ⅲ.
46) 계획서에 파견 우선순위 첫 번째에 올라온 지도자는 16명, 세 번째 전문가는 21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파견 분야와 인원은 애초 계획보다 줄었다(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15, July 5, 1957,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Country Program Proposal, Fiscal Year 1959, RG 59, CDF, 1955-1959, Box 2247).
47) FY60 Second Quarter Cultural Affairs, Objectives, 1, 2, 5, pp.3-5(RG 306, Information Center Service/Cultural Operation Division, Far Eastern Libraries and Centers Branch Country Files, 1947-1965, Box 35).
48) 금보운, 「한국정부 수립 시기 한미 간 행정권 이양과정과 성격—'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6, 한국사연구회, 2014, 337-383면.
49) Report of Cumulative Obligations of Program Funds by Country(RG 59, Assistance Branch, Box 10).
50) Use of 1954 Fiscal Year P.L. 402 Funds for grants, Extensions and U.S. Travel in

등교육의 복구 방안을 미국 대학에서 찾으려는 뜻 같다.

1952년과 정전 직후 나온 국무부의 회람은 1950년대 교수, 강사, 연구학자의 선발과 조건을 비롯한 각종 시행 지침을 보여준다.[51] 교수와 강사는 미국 대학에서 강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교과목을 강의하는 강사로 활동한 교수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들은 대개 자기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므로, 많은 이들이 연구학자에 신청하였다. 따라서 1953회계연도부터 국무부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자연히 영어에 능숙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수는 연구학자로 도미하거나 지도자와 전문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학자는 장래에 활동할 시간이 많은 청년이기를 바랐고, 연구 기간은 한 학기보다 1년이 더 좋다고 할 만큼 젊은 사람을 우대하였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1954회계연도에는 교수 프로그램이 연구학자와 강사 프로그램과는 분리되었다.[52] 이로써 한국인 교수 프로그램은 사라졌지만, 미국인 교수와 강사 프로그램은 명칭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미국 대학에서 강의할 능력을 갖춘 극소수의 교수를 강사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연구학자 프로그램은 대개 연배가 높은 교수가 택하는 과정이 되었다. 1954년에 도미한 연구학자 3인은 모두 50대였다. 파견된 교수는 흔히 교환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구학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적이 마르크스주의자를 민주주의자로 전향시키고자 하지는 않지만, 미국에 우호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강연 등 학술 외적인 활동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교육교환은 상호이익을 얻으려는 양방향 교류이므로, 미국 사회와의 긴밀한 접촉 가능성도 선발에 고려하도록 하였다. 심지어 유쾌하고 긍정적인 성격이 좋다고까지

Foreign Lecturer/Research Program(RG 59, Professional Activities Division, Box 1).

51) Circular Airgram, Foreign Professor-Lecturer, Research Scholar Program Authorized Public Law 402, Smith-Mundt Act, for Fiscal Year 1953, Control 1492, August 14, 1952(RG 59, Professional Activities Division, Box 2).

52) Department of State Instruction, NO. CA-3259 December 18, 1953,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Foreign Lecturer/Research Scholar Program Under Public Law 402, Smith-Mundt Act, 1954, Fiscal Year(같은 자료).

하였다. 미국대사관이나 양국 인사로 구성되는 연구훈련위원회(Committee on Study and Training)는[53] 후보자의 잠재력과 기대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지만, 정치 성향과 사회적 배경도 따져가면서 선정하였을 것이다. "해외유학생은 일부 고관들과 유력층 자제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처럼,[54] 교환방문자도 그런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

전후 학자 프로그램에 관한 대사관 담당자의 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55] 애초 중견(senior) 교수 6명을 연구학자로 1년 동안 파견하려고 하였다. 가장 중요한 연구 목적은 미국의 민주적 교육방법론을 이해하고, 교수 기술을 쇄신하고, 미국 학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미국의 학문과 지적인 성취를 존중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기존 교수에게 새로운 공부를 하라는 요구와 다름없었다. 교수 집단은 남한사회에서 영향력이 매우 높지만, 공산주의 선전에 취약하므로 미국의 학문, 예술, 정치, 경제 등의 업적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지식인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의식과 태도를 친미와 반공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였다. 미국유학 출신자로 재빨리 변신하여[56] 지위를 연장하고 상승하고자 애쓰던 일제하 일본유학 출신자도 있었지만, 식민지배 시대를 살고 일본인에게 배운 나이 많은 교수에게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대학에서 가장 유능

53) 1957년 한국 측 위원은 김활란, 박마리아, 백낙준, 윤일선, 유진오였다(Despatch NO. 436,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April 30, 1957,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Selection Procedures(RG 59, CDF, 1955-1959, Box 2246). 1960년 하반기 조사는 선발에 개인적 연분이 중요하다고 하였다(Werner Warmbrunn, Observation on Higher Educ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in some Countries of the Middle East and Asia:A Report Based on a Study Trip Made during September - December 1960, March 1961, Stanford University(RG 306, Historical Collection, Reports and Studies, 1953-1998, Box 17).

54) 『동아일보』, 1954년 7월 20일.

55) Despatch, from Amembassy, Pusan to Department of State, NO. 242, June 25, 1954, subject:1954-1955 IIA Prospectus Call for Korea(RG 59, CDF, 1950-1954, Box 2541).

56) 김성은, 「1950-6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미국 유학 선호」, 『사회와역사』 122, 한국사회사학회, 2019, 212~213면.

한 교원으로 추천받은 청년 교수 20명을 대학원생 프로그램으로 파견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미국의 문화와 교육의 성취를 잘 이해하고 학생과 지식인 사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대학의 재건과 세대교체를 이룬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와 같은 청년 교수 육성 계획은 교육교환 프로그램 시행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차지할 만큼 중시되었다.

교류 인원이 종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은 1954회계연도 사업에서 보듯이, 교육교환 프로그램은 전쟁 이전 상태로 쉽게 회복되거나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1955회계연도는 약 3배로 급증하였다. 이런 원인은 한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열전이 멈추고, 동서 냉전이 격화되자, 대공 심리전과 선전이 강화되고, 그 수단으로 교육교환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1953년 가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순방한 리차드 닉슨(Richard M. Nixon) 미국 부통령은 극동에서 벌어지는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였다. 이런 취지의 지시를 받은 국무부와 작전조정위원회(OCB)는 기존 교육교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대책을 수립하였다.[57] 당장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여 1955회계연도부터 한국 등 극동 각국의 프로그램을 증강하고, 민간 재단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그리고 OCB를 중심으로 교육교환과 종교 같은 교육과 문화 영역의 활동에 이데올로기, 반공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58]

2) 프로그램의 변화

교육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 변화는 한국에도 즉각 영향을 미쳤다. 미국대사관은 1954년 가을 인적 교환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국무부의 전문에 따라서 새롭게 세운 계획을 제출하였다.[59] 프로젝트 16개

57) Operations Coordinating Board, Expande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in the Far East, March 15, 1954(RG 59, Staff Studies and Reports and Operations Coordinating Board (OCB) Working Papers, 1951-1955, Box 1); Department of State Instruction, NO. CA-82 July 2, 1954,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Expande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in the Far East(RG 59, CDF, 1950-1954, Box 2265).

58) Kenneth Osgood,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6, pp.304-314.

의 우선순위에서 지식계와 정치계 지도자 파견은 제2순위, 우수 학자는 제7순위였다. 물론 교육교환사업이 개시된 이래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 프로그램이 가장 중시되었지만,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직접적이며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치권력과 여론 영향력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였다. 이제까지 고등교육의 전후복구에 역점을 두던 학자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미국대사관은 각 대학이 추천한 70명의 후보자 가운데 20명을 1955회계연도 대학원생 프로그램에 선발하였다. 국무부는 2명을 추가하여 대학원생 22명을 파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파견자 숫자가 많고, 정보도 충실하므로, 연구학자 9명과 함께 아래 〈표 2〉로 제시한다.

〈표 2〉 1955회계연도 대학원생과 연구학자 파견자[60]

성명	프로그램	전공	직업	배치
강용구	대학원생	무기화학	경북대 강사	오하이오대
곽봉수	대학원생	정치학	전남대 부교수	위스콘신대
김기두	대학원생	형사법	서울대 법대 조교수	하버드대
김봉호	대학원생	역사학	전북대 역사학 교수	오하이오대
김상돈	대학원생	물리학	고려대 교수	브루클린 폴리테크니컬 연구소
김성태	대학원생	음악	서울대 음악 교수	인디아나대
김영달	대학원생	국제관계	국학대 정치학 부교수	버지니아대
김진배	대학원생	수학	연희대 수학 교수	시카코대
노준후	대학원생	조류학	성균관대 생물학 강사	듀크대
박창해	대학원생	교육학	연희대 부교수	컬럼비아대
서돈각	대학원생	영미법	강사	남부감리교대
손주영	대학원생	국제관계	강사	컬럼비아대
유근석	대학원생	체육교육	이화여대 체육학 교수	스프링필드대
유기준	대학원생	정치학	전남대 정치학 조교수	노스캐놀라이나대
이광 S.	대학원생	영미법	고등법원 판사	남부감리교대

59) Operation Memorandum, from American 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October 26, 1954(RG 59, CDF, 1950-1954, Box 2541).

60)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NO. 996, March 5, 1955(RG 59, CDF, 1955-1959, Box 2246); Directory of Foreign Grantees on the 1955 Program, Section Ⅱ. Far East(RG 59, Professional Activities Division, Box 1). 영문 인명을 한글로 바꾸었으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동형	대학원생	유기화학	전남대 조교수	일리노이대
이보형	대학원생	역사	홍익대 교수	코넬대
이창환	대학원생	미국문학	숙명여대 영문학 교수	펜실바니아대
정범석	대학원생	민사법	정치대 법학 교수	미시간대
현승종	대학원생	비교법	고려대 경제학 조교수	툴레인대
홍복유	대학원생	영문학	이화대 교수(신태환 처)	컬럼비아대
홍성유	대학원생	경제학	동국대 경제학 조교수	예일대
기룡숙	연구학자	의학	서울대 미생물학 교수	피츠버그대
김고숙	연구학자	교육학	철학 교수	하버드대
박종홍	연구학자	철학	서울대 철학과 교수	미네소타대
백남옥	연구학자	법학	방문교수	미시간대
신기석	연구학자	정치학	교수	조지타운대
유욱원	연구학자	언어학	영어교수	인디아나대
임응국	연구학자	펄프	연구원	매사추세츠 기술연구소
최윤식	연구학자	수학	교수	시카코대
한표동	연구학자	무대예술, 드라마	문과대 학장	컬럼비아대

1955회계연도 연구학자와 강사 신청과 관련된 지시서에는 종전에 없던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61] 전에는 전공 분야의 기본 소양을 강조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박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미달하더라도, 대학교수 수준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였다. 실질적으로는 강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겠지만, 학부나 대학원 수업에서 영어 강의가 가능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사관이 자금 계획, 신원 확인, 추천 사유 등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밖에 신청, 선정, 여비, 비자, 입국, 연장, 귀국 등 여러 단계에 걸친 절차와 업무를 세세하게 규정하였다. 즉 프로그램의 시행 과정을 한층 체계화시켰다. 귀국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고 책임을 부과하였다는 점도 눈에 띈다.

1955년 교육교환 프로그램은 파견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던 만큼, 적지 않은 변화를 수반하였다. 극동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지도자 프로그램, 특히 정치 지도자인 국회의원 파견 사업을 시작하였다.[62] 이들이 직접 미국 의회

61) Department of State Instruction, NO. CA-3721 December 7, 1954,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Foreign Lecturer/Research Scholar Program Under Public Law 402, Smith-Mundt Act, 1955, Fiscal Year(RG 59, Professional Activities Division, Box 2).

등을 보고 느끼면서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였다. 한편으로는 전쟁과 정전을 거치면서 한·미 간의 갈등은 심각히 고조되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복원하고, 나아가 미국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강화하고 활용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고려하였으므로, 자유당 중진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 엘리트는 혈연으로 묶여있으므로, 그 정점에 있는 정치인을 미국에 초청하면, 여론 지도자층에서 미국 정책 이해와 긍정적인 이미지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법과 행정,[63] 경찰, 노동, 언론, 청년 프로그램이 추가로 시행되거나 규모를 키워갔다.

1956회계연도 교육교환 프로그램 예산은 미국의회에서 대폭 삭감하였다.[64] 국무부는 40명보다 더 적은 숫자를 선발하도록 하였으나, 미국대사관은 전년도만큼은 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65] 한국에서는 미국 유학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엘리트 집단은 국가 목표 달성에는 서구 지식이 필요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적합자를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실제 선발 인원은 요청한 숫자보다 적었다. 대학원생은 12명이지만, 일부 명단만 확인하였다.[66] 연구학자는 이상은 고려대 교수와 류홍렬 서울대 교수였다.[67] 그 밖에 지도자 10명과 전문가도

62)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291, March 15, 1956,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Appraisal of Country Plans(RG 59, CDF, 1955-1959, Box 2246).

63) 남부감리교대학에서 1955년 2월 시작하는 행정과 법 전문가 프로젝트에 파견자를 보낼 수 있는 대상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었다(Department of State Instruction, NO. CA-4111 December 23, 1954, RG 59, CDF, 1950-1954, Box 2266). 이 프로젝트는 컬럼비아 대학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었으므로, 뉴욕으로 간 파견자도 있었다.

64) 미국의회는 대통령이 신청한 2천 2백만 달러에 달하는 국제교육교환 예산에서 1천만 달러를 삭감함(Attachment of Memorandum, from Carl W. McCardle to the Secretary, APR 19 1955, subject: Appropriation Cut in the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for 1956, RG 59, CDF, 1955-1959, Box 2078).

65)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269, February 24, 1956, subject: Allocation of Exchange of Persons Funds(RG 59, CDF, 1955-1959, Box 2246).

66)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NO. 87, July 23, 1956(같은 자료);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NO. 98, July 25, 1956.

선발되었다.[68]

1958회계연도에는 교육교환 프로그램 전체에 충격이 가해졌다. 이해 교육교환 예산이 미국 하원에서 약 41%가 삭감되어 1,750만 달러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31개국의 프로그램은 중단되었다. 한국도 지도자와 전문가 프로그램 예산의 2/3가 줄었다.[69] 1958년은 풀브라이트 협정 이행을 전제로 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한국에서 122명을 파견하고, 미국인 강사와 전문가 16명을 방한하도록 한다는 대규모 계획이었다.[70] 그러나 풀브라이트 협정 이행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 결과 교육교환 프로그램의 규모가 축소되어 대학원생 20명, 지도자와 전문가 25명을 파견하는데 그쳤다.

1957년 7월 미국대사관은 1959회계연도의 교육교환 참여자를 107명으로 신청하였다.[71] 그러나 풀브라이트 협정의 미이행은 그해에도 영향을 끼쳤다. 가장 먼저 추진할 프로젝트는 정치와 행정 분야의 16명 파견이었고, 다음으로는 대학원생(청년 교수) 12명이었다. 같은 프로젝트로 파견되지만, 후순위에 배정된 인원도 있었다. 대학원생은 모두 30명(수학 연장 5명 포함), 연구학자는 4명, 교사는 4명을 파견할 예정이었다. 대학원생 30명 파견은 계획대로 이행되었고, 연구학자는 1명도 파견되지 않았다. 그동안은 대학교수, 특히 중견 교수가 연구학자로 도미하였으나, 그들의 자질과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1960년도에도 대사관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연구학자는 한 명도 파견되지 않았다.

미국대사관은 1960회계연도 사업을 프로그램별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국

67)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NO. 1116, May 8, 1956(같은 자료).
68)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NO. 1167, May 22, 1956(같은 자료).
69) Effect of House Cut in Appropriations for the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Activities of the Department of State(RG 59, CDF, 1950-1954, Box 2263).
70)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NO. 160, August 8, 1956(RG 59, CDF, 1955-1959, Box 2246).
71)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15, July 5, 1957,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Country Program Proposal, Fiscal Year 1959(RG 59, CDF, 1955-1959, Box 2247).

무부에 신청하였다.[72]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도자 프로그램이었고, 이어서 전문가, 세 번째가 대학원생 30명(전액 장학금 10명, 여비 지원 20명)이었고, 연구학자는 5명(전액 장학금 3명, 여비 지원 2명)이었다. 연구학자 프로그램은 서울에서 새로 부상하는 대학에서 핵심적 지위에 있는 교수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동일한 프로그램이지만, 대학원생 15명, 연구학자 2명은 후순위로 밀렸고, 결국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1959회계연도 연례보고서는 미국인 교수가 방한하여 활동하는 편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스미스-먼트 프로그램은 한국 학생을 미국에 보내는 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미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확산하고, 미래의 지도자를 교육하는 대학교수의 도미유학이 경시된 것은 아니었다. 대학원생 프로그램은 여전히 전체 파견자의 약 30%에 달하던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래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방향은 영어와 전공 분야의 학습 능력과 장래성이 뛰어난, 다시 말하여 정책 효과가 큰 '준비된' 청년 교수는 계속 지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중견 학자에게는 기회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학자 교환사업인 풀브라이트 협정이 1960년에 이행됨으로써 청년 학자의 도미유학은 한층 더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교육받은 교원이 서울대 25%, 고려대 41%, 연세대 45%, 이화대 38%를 점하였고,[73] 머지않아 대학사회의 헤게모니는 미국 유학파가 장악하게 되었다. 1983년 조사에서는 북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교수가 이미 전체의 21.9%에 달하였고, 교육교환 프로그램이 치중하였던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는 각각 38.3%, 36.4%였다.[74]

---

72)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46, July 28, 1958,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Fiscal Year 1960 Country Program Proposal(같은 자료).

73) Airgram,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242, Dec 12, 1966((CU), Box 244). 정범모는 서울대 교수 51%가 미국에서 훈련받았다고 한다(Minutes of the Seventy-first Meeting, May 19-20, 1967, RG 59, Board of Foreign Scholarships, Minutes of Bi-National Educational Commissions and Foundations 1947-1978, Box 19).

74) Woolchul Kang, Insook Chang, Sungho Lee, Daehak Kyosoozawon Teuksung Yonkoo(Seoul: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1983), p.37(Sungho Lee, "The Emergence of the Modern University in Korea", Higher Education, 18-1, 1989, Springer, p.109. Table 2에서 재인용).

전재복구가 웬만큼 이루어진 1950년대 중반에는 근대화나 경제개발로 비중이 옮아가던 대한정책의 변화가 교육교환에 반영되었다. 1956년 10월 ICA-미네소타 대학 사업의 책임자 아서 슈나이더(Arthur E. Schneider)가 서울대와 관련하여 교육교환 프로그램 확대를 권고하는 서한을 대사관에 전달하였다.[75] 그는 윤일선 총장과 상의하였다고 하며, 서울대를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초과학, 영어교육, 약학과 치의학까지 PL 402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전에 미네소타 대학 사업으로 진행된 서울대 교원의 도미연수는 기술 분야에 역점을 두고, 국무부 교육교환 프로그램의 연구학자와 청년 교수 프로그램은 인문학을 지원한다는 점을 서로 약정하였다.[76] 따라서 서울대 자연과학 분야 교수의 도미에 교육교환 재정을 사용하라는 요구는 약속 위반이며, 고등교육원조를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하는 서울대에 여타 대학의 희생으로 추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대학의 불균형 발전을 한층 더 조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고, 나아가 한·미 상호이해라는 대한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대사관은 서울대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1958회계연도 교수 프로그램의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뜻을 국무부에 강력히 전달하였다. 하지만 국무부는 1958년에는 풀브라이트 협정이 이행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교육교환의 확대를 꾀하고 있으므로, 슈나이더 제안대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였다.[77] 1958회계연도 풀브라이트 협정 이행은 무산되었고, 그에 기초한 계획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래도 서울대는 1959회계연도 사업으로 연구학자 1명을 미네소타 대학에 파견하고, 청년 교수 5명을 파견하는 과학교육 프로젝트를 대학원생 프로그램 안에 새로 만들 수 있었다.[78] 이를 계기로 인적 교환에 관련된 대사관과 ICA의 권한은 조정

75)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136, November 2, 1956,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FY 58 Budget(RG 59, CDF, 1955-1959, Box 2246).
76)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NO. 308, September 24, 1956(같은 자료).
77) Department of State Instruction, A-120, February 6, 1957, subject: Plans for an Expanded Fiscal Year 1958 Educational Exchange Program(같은 자료).
78)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15, July 5, 1957,

되어 후자가 교육교환 프로그램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그 폭은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79] 다시 말하여 교육교환은 해외선전 외에 저개발국가의 개발이라는 임무를 추가로 부여받음에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상호이해'와는 더욱 거리가 멀어졌다.

3) 파견자 선발 방식의 변경

지도자와 법조인을 비롯한 파견자들, 심지어 미국인에게 배우러 도미한 대다수 강사와 연구학자까지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80] 국무부는 이들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며, 철저히 교육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애초 문제를 제기한 미국과학재단 산하 연합연구협의회는 연구학자와 강사를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실무기구였다. 협의회는 한국인 연구학자는 미국에 도착하여 아메리칸 대학의 영어시험을 보거나 교육받으라는 권고까지 하였다. 영어 쓰기와 말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들이 미국에서 얻어갈 것은 심오한 지식이나 학문이 아닌 막연한 인상이나 피상적 견문에 불과한 것으로, PL 402가 표방하는 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구 목적 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신청서도 충실하게 써야 하였다. 그 예로 한국에서는 저명한 교수가 거명되었다. 여러 해에 걸쳐서 드러난 한국인 학자와 교수의 취약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원생들이 아시아 국가의 파견자보다도 연구 준비가 덜 되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국대사관은 대학원생 지원자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 상태에서 파견할

---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Country Program Proposal, Fiscal Year 1959(RG 59, CDF, 1955-1959, Box 2247).

79) Seoul Notes, Vaughn R. DeLong, June 22-26, 1957(RG 59, Bureau of Cultural Affairs, Subject Files of the Policy Coordination Staff, 1956-60, Box 4).

80) Question about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 Korea((CU), Box 318); Department of State Instruction, A-13, July 27, 1956, subject: Lack of English Language Competence; and, Need for More Adequate Application Data from Korean Research Scholar/Lecturer Candidates(RG 59, CDF, 1955-1959, Box 2246); Department of State Instruction, A-80, November 28, 1956, subject: Review of the 1956-57 Foreign Study Program.

수밖에 없는 사정을 심각하게 여겼다.[81] 지원자는 많지만, 대사관 인력은 부족하고, 한국 대학의 교육과 성적 평가를 신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국무부는 중견 교수의 타성과 영어 능력 부족을 비판하며 파견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였지만, 미국대사관은 유지를 건의하였다.[82] 대사관은 선배 교수들이 후배 교수들을 억누르고, 대학을 장악하여 움직여 나가고, 자기 제자를 교수로 임용하기 때문에 유학을 마친 젊은 교수들이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지 못하는 폐단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젊은 교수들은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많이 있어도, 일본인에게 배우고 낡은 생각을 가진 선배 교수는 그렇지 않으므로, 대학 학장이나 선배 교수들에게 미국 교육제도와 생활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주어야 젊은 교수가 실력을 발휘할 환경이 조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저명하므로 학계와 동료에게 미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1957회계연도 연구학자로 연세대 학장 장기원, 서울대 교수 이인기, 중앙대 학장 백철을 추천하였다.[83] 이들은 라도(Lado) 영어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았고, 대학 행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전공 분야에서도 존경받는 학자들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런 호소 덕분인지 연구학자 프로그램은 존속하였지만, 이후 여러 해 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1950년대 중반에 이르면, 대학 사회에는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움텄다. 미국 대학에서 수학한 능력 있는 청년 교수들은 학생과 지식인 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는 평을 얻었다.[84] 그들은 대

81)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360, May 8, 1956,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Annual Report on the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Program(같은 자료).

82)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345, March 7, 1957,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FY57 Research Scholar(같은 자료).

83)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NO. 671, January 18, 1957(RG 59, CDF, 1955-1959, Box 2247);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NO. 709, January 30, 1957.

84)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269, February 24, 1956, subject: Allocation of Exchange of Persons Funds(같은 자료);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291, March 15, 1956,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Appraisal of Country Plans.

학의 강의 수준을 개선하였고, 미국인 스승은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미국 교과서는 기본도서 '원서'가 되었다. 미국의 학문과 지식의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학자와 지식인 집단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연세대 미국인 교수는 가장 중요한 대학 발전은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젊은 교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학자 프로그램, 그중에서도 청년 교수를 선발하여 파견하는 대학원생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가 높았다. 따라서 대사관은 인원을 전체 프로그램의 1/3 이상 유지하려고 하였고, 일반 학생보다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젊은 강사나 교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85] 1958회계연도 후보자 평균나이는 31살이었다.

국무부의 개선 지시가 있는 뒤에는 파견자 선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57회계연도 대학원생 프로그램의 파견자는 지방 출신이 많아졌고, 나이는 더 젊어졌다.[86] 문교부 대학기준령에 부합하는 33개 대학에서 영어에 능통하고, 가장 뛰어난 청년 교수로 추천을 받은 64명 가운데 19명을 선발하였다.[87] 차기벽, 장왕록, 한기언, 김태길, 이근삼, 남덕우, 송욱, 김정흠 등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강사와 조교수인 젊은 교원이었다. 지방대학 교수가 절반인 8명으로, 종전에는 영어 실력 부족 등으로 지방대학 교수가 선발되기 어려웠으므로, 최초의 대대적 선발이었다. 이들은 미국에서 얻은 새로운 사상을 소속 대학의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에 전파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나아가 지방도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날 계기라고 보았다. 19명의 청년 교수는 1957~58학년도에 도미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였다.[88] 몇 명은 봄학기를

85) Memorandum, from IES-Mrs. Gertrude G. Cameron to IES-Mr. Riley, March 28, 1956, subject: debriefing for MARCUS SCHERBACHER, CAO from and returning to SEOUL, March 21, 1956((CU), Box 318).

86)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241, December 31, 1956(RG 59, CDF, 1955-1959, Box 2246);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NO. 606, December 28, 1959(같은 자료).

87)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46, July 28, 1958,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Fiscal Year 1960 Country Program Proposal(같은 자료).

88)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65, August 8, 1958,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Annual Report, Fiscal Year 1958(RG 59, CDF, 1955-1959, Box 2247).

마친 뒤에 귀국하였으며, 몇 명은 수학 연장을 신청하였다.

1957년 국무부 국제교육교환국이 개최한 아시아 교육교환회의에서도 교육교환 프로그램 귀국자가 수도에 집중되는 경향을 완화할 필요가 크다는 방침에 각국 주재 문정관들이 동의한 바가 있었다.[89] 슈바커 문정관은 한국은 특히 서울대의 위상 때문에 더욱 그러하고, 유력인사들이 서울에 주로 거주하므로, 그 영향력이 지방까지 미치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거론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할 방법은 지방에서도 더 많은 교환방문자를 선정하여 파견하는 길이었다. 1960회계연도 보고서는 2년 동안 약 2/3에서 3/4에 달하는 대학원생 파견자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지방 대학에서 선발하였다고 한다.[90]

대사관은 1958회계연도 사업으로 1958년 9월 대학원에 입학할 한국 대학의 강사 5명을 선발하였다고 1957년 12월에 보고하였다.[91] 30개가 넘는 전국 대학에서 신청한 청년 교수에게 영어시험(지방은 Lado, 서울은 American University Language Center의 English Usage Test)을 부과하였다. 시험 통과자는 영사관과 미국공보원 직원이 구두 면접을 하여 발음 등 영어 사용 능력을 검증하였다. 영어시험에 합격한 34명에게 신청서를 받았고, 다시 22명을 연구훈련위원회에서 면접하였고, 그중에서 5명을 선발하였다. 최종 선발자들은 대사관 문정관 비서와 함께 매주 1회씩 영어회화를 연습하여야 하였다. 그만큼 파견자의 영어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5. 맺음말

국제정보교육교환법(PL 402)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반공과 자유경제의 질

89) Regional Conference on Educational Exchange, Bangkok, Thailand, October 28 - November 1, 1957(RG 59,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Records Relating to Leaders and Specialists Project, 1951-1963, Box 2).

90)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122, September 8, 1960,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Annual Report, Fiscal Year 1960((CU), Box 318).

91)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399, December 19, 1957, subject: Educational Exchange: FY58 Foreign Study Grants(young professor)(RG 59, CDF, 1955-1959, Box 2247);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NO. 477, December 19, 1957(같은 자료).

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정보공유와 상호이해를 내세우며 미국문화의 헤게모니를 구축하려던 미국의 대외정책 수단이었다. 1950년대 이 법에 의거한 교육교환 프로그램으로 약 500명의 한국인과 미국인이 태평양을 건넜다. 이런 인적 이동은 한·미 교육교환을 표방하였으나, 미국의 정보와 지식, 학문과 기술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이었으며, 쌍방향의 정보공유와 이해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학의 미국화'는[92] 두말할 나위 없으며, 사회와 국가 체제를 미국식으로 재편하고, 한국인의 삶을 변화시켰던 중대한 요인 중의 한 가지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조선의 구질서와 일제 식민지배가 기른 한국의 엘리트를 친미 세력으로 부분 교체하거나 기득권을 보강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교육교환은 근래 연구주제로 관심을 받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연구는 제도로서 교육교환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고찰하면서 기존 업적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1950년 프로그램의 개시부터 10년 동안 시행과정의 정책, 교환방문자의 선발을 주로 알아보았다. 특히 한국의 학문과 교육을 미국식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한 학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지만 교육교환의 결과와 영향을 구체적이며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였다. 그런 작업은 귀국자들이 무엇을 배워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였는지, 또한 그것을 수용한 토대와 변화도 차근차근 살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제도와 그 시행의 대강을 훑어본 본고는 연구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에서 시행된 교육교환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학자 프로그램은 미국의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한국을 장기적이며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시행된, 학생으로서 한국인 현지 교육의 한 종류였다. 대학원생이 대다수인 파견자는 도미유학으로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한국 대학과 사회에 전파함으로써 미국식 사회체제와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이바지하고, 대학교수의 세대교체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원조

92) 김정인, 『대학과 권력: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8, 88-94면.

기관의 기술연수 프로그램이 기술과 자연과학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주로 지원하였다. 1950년대에는 파견자의 귀국 후 활동 기간이 짧았고, 풀브라이트 협정의 이행이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는 못하였다. 지도자 프로그램은 한국의 정치와 사회 각 부문에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운영한 단기 방문 프로그램이었다. 정부와 기업의 실무 중견 간부는 전문가 프로그램으로 도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 법조인, 전현직 행정관리, 언론인이 비학문 프로그램의 대표적 파견자였다. 반면 지도자라는 호칭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활동한 미국인은 한 명도 없었다. 대다수가 교수였던 미국인 파견자는 전문가이자 교사로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권위와 영향력을 얻었다. 미국대사관은 프로그램 시행으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분야로 한국법학원, 언론, 교육을 꼽았다.[93]

1950년 봄 교사훈련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파견된 영어교사들이 첫 교환방문자였다. 한국전쟁으로 이미 선발된 유학생, 연구학자, 지도자 중 일부만 도미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1953년까지 소수의 지도자와 전문가만이 파견되었고, 학자 프로그램으로는 이미 유학하고 있던 학생의 수학 연장을 지원하였을 뿐이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고등교육의 전후복구에 중점을 둔 학자 프로그램이 교류 규모와 예산 등을 회복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학원생 프로그램은 젊은 대학 강사나 교수를 대상자로 삼았고, 그들을 청년 교수라고 지칭하였다. 강사와 연구학자 프로그램은 대개 중견 교수가 택하였으며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1955회계연도에는 예산이 대폭 증액된 덕분에 파견 규모가 커졌다. 또한 지도자와 전문가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 법조인, 언론인을 집중적으로 파견하는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1956회계연도와 1958회계연도에는 예산 축소로 계획을 변경하여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1957회계연도와 1959회계연도는 파견 인원이 늘었다. 이처럼 1950년대까지만 하여도 프로그램의 시행 기조는 대체로 불안정하였고, 그 주요 원인은 미국의회의 예산 삭감이었다. 또한 국무부의 대한정책에서

93)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124, August 22, 1957((CU), Box 318).

경제개발의 비중이 커지자, 교육교환 사업도 그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환방문자를 포함한 사비 유학생 등 미국에서 공부한 대학교수가 점차로 많아졌고, 그에 따라서 대학사회에도 변화의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 미국대사관은 이를 "누적 효과"라고 하였다.94)

국무부는 미국에서 지식과 학문을 배우려는 한국인 학자와 지식인의 수용능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보았다. 무엇보다 영어 실력이 부족하였으므로, 미국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학업도 충실히 할 수 없었다. 나이 많은 중견 교수는 타성이 강하여 새로운 것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대학원생의 전공 기초학력이 낮다는 평가도 나왔다. 단순히 프로그램의 효과뿐 아니라 도미유학의 한계, 지식과 학문 수용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해 보아야 할 사실이다. 따라서 국무부는 유학생의 영어 능력 향상을 요구하였고, 중견 교수가 지원하던 연구학자 프로그램을 없애려고 하였던 반면에 젊은 대학교원의 대학원 진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미국대사관은 영어 시험 방법을 개선하였지만, 학력이 달리는 대학원 지망생을 거르는 작업은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는 한국 대학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서울 소재 대학에 편중된 파견자 선발을 시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한국 사회와 대학의 실정에서는 학자 프로그램의 기반을 지방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94) Despatch, From AmEmbassy,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NO. 47, August 6, 1959(위와 같음).

▮ 참고문헌

Manuscript Collection 468: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Historical Collection (CU), University of Arkansas, Mullins Library.
RG 59, Board of Foreign Scholarships, Minutes of Bi-National Educational Commissions and Foundations 1947-1978.
RG 59, Bureau of Cultural Affairs, Subject Files of the Policy Coordination Staff, 1956-60.
RG 59,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Records Relating to Leaders and Specialists Project, 1951-1963.
RG 59, Bureau of Far Easter Affairs, Office of the Country Director for Korea.
RG 59, Central Decimal File, 1945-1949, 1950-1954, 1955-1959.
RG 59, Correspondence, Memorandums, and other Reports of the Foreign Grantees Branch of the Professional Activities Division, 1954-1955.
RG 59, Correspondence, Memorandums, and Reports of the Chinese and Korean Assistance Branch, 1948-1955.
RG 59, Records Relating to the President's Committee on Information Activities Abroad.
RG 59, Staff Studies and Reports and Operations Coordinating Board (OCB) Working Papers, 1951-1955.
RG 306, Bureau of Information, Office of Information Resources, Library Programs Division, Special Collections Branch.
RG 306, Information Center Service/Cultural Operation Division, Far Eastern Libraries and Centers Branch Country Files, 1947-1965.
RG 469, Office of the Deputy Director of Administration, Far East Geographic Files, 1948-1952.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17-1972, Volume VI, Public Diplomacy, 1961-1963, Washington, 2017.

금보운, 「한국정부 수립 시기 한미 간 행정권 이양과정과 성격—'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6, 한국사연구회, 2014, 337-383면.
김명진, 『1950년대 고등교육 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성은, 「1950-6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미국 유학 선호」, 『사회와역사』 122, 한국사회사학회, 2019, 212~213면.
김정인, 『대학과 권력: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8.
김지연, 「전후 미국의 한국 교육원조, 1956-62」,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임대식,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사, 152-167면.
장영민, 「1950년대 도미유학과 유학생의 미귀국」, 『한국근현대사연구』 96, 한국근현대사학회, 2

021, 303-339면.
_____, 「정부 수립 이후(1948-1950) 미국의 선전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3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272-351면.
정범모, 「교육교환에 의한 미국문화의 영향」, 『아세아연구』 26,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107-119면.
차재영, 「1950년대 미국무성의 미국 언론 전문가 파견 사업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87, 한국언론정보학회, 2018, 243-275면.
_____, 「1950년대 미국무성의 한국 언론인 교육교류 사업 연구」, 『한국언론학보』 58-2, 한국언론학회, 2014, 219-245면.
한봉석, 「미국 대한원조에서 미국대학들(American Universities)의 역할과 그 의미: 시라큐스 대학과 오레곤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림』 70, 수선사학회, 2019, 191-220면.
한진금, 「1950년대 미국 원조 기관의 對韓기술원조훈련계획 연구」, 『한국사론』 56, 서울대 국사학과, 2010, 474-477면.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8.

Brazinsky, Gregg,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Lee, Sungho, "The Emergence of the Modern University in Korea", Higher Education, 18-1, 1989, Springer, pp.87-116.
Liem, Wol-San, "Telling the 'truth' to Koreans: U.S. Cultural Policy in South Korea during the early Cold War, 1947-1967",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Ph.D., Department of History, New York University, September, 2010, pp.207-273, pp.385-456.
Osgood, Kenneth,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6.
Jai Ok Shim, James F. Larson, Frederick F. Carriere & Horace H. Underwood, *Fulbright in Korea's Future, Korean-American Educational Commission*, Seoul, Seoul Selection, 2010.

경향신문,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uscode.house.gov/browse.xhtml(2021.1.20. 검색).
https://www.hathitrust.org/(2022. 3.1. 검색).

【Abstract】

Korea-U.S. educational exchange under the U.S.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Act (PL 402) in the 1950s* —Focusing on the Scholar Program—

Chang, Young-Min**

This study mainly examined the policies and changes in the educational exchange program implemented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1950s under the U.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Act of 1948 (PL 402). In particular, it focused on the scholar program that played a major role in changing Korean academics and education to the American system. The PL 402 w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reorganized society and the national system in the American way in Korea and changed the lives of Koreans. The first project began in 1950, but it was disrupted by the Korean War. The program recovered after the war, but in the 1950s, the size and budget were in an unstable state of fluctuation. The scholar program was a long-term plan to send students and scholars to American universities to learn knowledge and discipline. As the core program was to send young professors as graduate students, the number of dispatched students was the largest, followed by a small number of research scholars and lecturers. However, the leader and expert program was most valued as a practical means of the US government's policy toward Korea. In the late 1950s, the policy of selecting the grantee of the scholar program changed. As a result, young professors with English proficiency were preferred to senior professors, and scholars were also selected from local universities.

Keywords: U.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Act of 1948, PL 402, Smith-Mundt Act, Educational Exchange, Study in the U.S., Study Abroad.

접수일: 2022.03.30. ‖ 심사일: 2022.04.13. ‖ 게재확정일: 2022.05.29.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8S1A5A2A01037666).

** Emeritus Professor, Dept. of Media and Advertizing, Sangji Univ.